

‘KIA의 선택’ 광주일고 이의리 “양현종 후계자는 나”

2021 신인 1차 지명...186cm 장신·140km중후반대 빠른 공 장점 좌완 투수
광주일고, 2년 연속 1차 지명 배출...“감독님과 대화 위해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것”

KIA 타이거즈의 선택은 역시 광주일고 애스 이의리였다.
KBO가 24일 2021년 신인 1차 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IA는 광주일고의 좌완 이의리를 1차 지명 선수로 낙점했다.
이의리는 186cm, 85kg의 뛰어난 체격에 시속 140km중후반대의 빠른 공을 던지며, 속구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투수다.
이의리는 “상상만 하던 곳에 와서 유니폼도 입으니까 정말 프로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렸을 때부터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의 바르고 인성 좋은 선수가 인정받고 싶다. 1군에서 오래 팬들을 뵙고 싶다”고 언급했다.
3남매 중 막내인 이의리는 대성초 3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야구부 테스트를 봤다. 이후 수창초-충장중-광주일고를 거쳐 자신의 고향팀에서 프로선

수의 꿈을 이루게 됐다.
이의리는 “아버지께서 못하든 잘하든 묵묵히 지켜봐 주셨다. 지명을 받고 아빠, 엄마, 가족들이 다 좋아했다”며 “아직은 부족하다. 프로가서 더 잘해서 부모님 고생 안 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해영에 이어 이의리까지 광주일고는 2년 연속 1차 지명 선수를 배출하게 됐다.
이의리는 “해영이 형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좋고, 광주일고의 위상을 높여서 기분이 좋다”며 “해영이 형을 보면서 나도 프로 가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해영이 형이 안 멀고 잘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 부분이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또 “해영이 형이 항상 말해주는 게 제구가 안 되면 올라오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 신경 쓰고 있다. 기회를 받으면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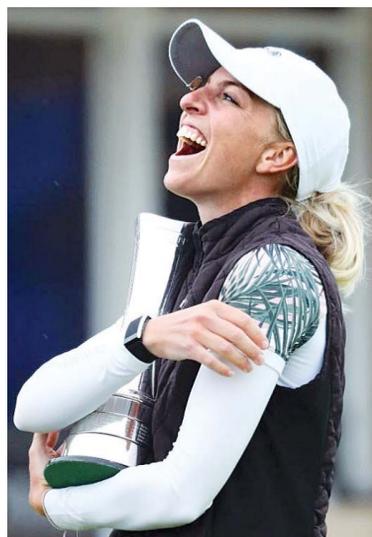
을 시즌 코로나19 여파로 컨디션 조절 등에 어려움 겪었지만 지난해보다 많은 부분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자신감’도 커졌다.
이의리는 “(3월)명문고 야구 열전에 맞춰서 페이스를 올리려고 했는데 대회가 미뤄졌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운동을 못 해서 몸을 다시 갖 들어야 하는 게 힘들었다”면서도 “올해 다 좋아진 것 같다. 밸런스가 잡히고 공도 괜찮아졌다. 제구도 좋아졌고, 구속도 올랐다. 변화구도 커브, 체인지업 연습해서 던지니까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을 시즌 최고 스피드 149km까지 기록한 이의리는 프로에서의 ‘변화구 완성도’와 ‘스피드’가 궁금하다.
이의리는 “을 시즌 앞두고 밸런스 운동과 회전 운동을 많이 했다. 재미있었다. 투구시 다리를 들었다 나갈 때 타이밍을 맞추는 걸 신경쓰다보니까 좋아진 것 같다”며 “프로에 가서 더 배우면서 잘 될 것이다. 프로에서 어느 정도 변화구가 완성되고 구속이 나올 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슬라이더가 가장 자신있는 이의리는 프로에서 양현종 선배의 슬라이더와 노련함을 배우고 싶다.
이의리는 “1회부터 계속 긴 이닝을 가져가면서 구속도 똑같은 떨어지지 않고 완급 조절도 잘하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며 양현종의 후계자가 되는 꿈을 이야기했다.
아직은 채울 게 많은 어린 선수. 프로의 벽을 넘기 위해서 ‘몸관리’에 가장 신경 쓸 생각이다.
이의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키가 152cm였다. 키가 안 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꾸준히 컸다. 지금도 크고 있다(웃음)”며 “몸상태를 잘 만들어서 프로에 가야 할 것 같다. 스피드 빠르게 하고, 좋은 회전의 공을 던지기 위해 몸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 이의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영어’다.
MLB팬인 이의리는 “(윌리엄스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우승하셨다는 건 알고 있다.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304위 ‘우승 동화’



포포프, LPGA AIG 오픈 우승
獨 여자 선수, 사상 첫 메이저 제패

여자골프 세계 랭킹 304위 조피아 포포프(28·독일)가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총상금 450만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포포프는 24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열 트론 골프클럽(파71·664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7언더파 277타를 기록한 포포프는 2위 재스민 수안나뿌라(태국)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67만 5000달러(약 8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독일 선수가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것은 이날 포포프가 처음이다.
3라운드까지 3타 차 선두였던 포포프는 이날 첫 홀(파4) 보기로 불안한 출발을 보이는 듯했지만 2, 3, 6번 홀에서 연달아 버디를 잡아내며 안정을 찾았다.
전날 3타 차 공동 2위였던 수안나뿌라가 4~7번 홀에서 4연속 버디를 몰아쳐 1타 차로 추격했으나 포포프는 타수를 잃지 않고 계속 리드를 지켰다.
결국 수안나뿌라가 11, 13번 홀 보기에 발목을 잡혀 3타 차로 멀어졌고, 포포프는 15번과 16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포포프는 세계 랭킹 304위에 불과하고, 현재 LPGA 투어 출전권도 없는 무명 선수다.
2015년 LPGA 투어 신인으로 데뷔했으나 한 시즌 만에 투어 카드를 잃었고, 2018년에는 조건부 출전권으로 LPGA 투어에 복귀했으나 역시 다음 시즌까지 시드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도전했던 LPGA 투어 켈리 파인스쿨을 1타 차로 통과하지 못해 올해도 2부 투어인 시메트라 투어에서 뛰는 포포프는 7월 말 LPGA 투어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는 아너 판담(네덜란드)의 캐디로 나선 경력도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LPGA 투어가 중단된 올해 상반기에는 미니 투어인 캡티스 투어에 출전해 세 차례 우승, 주목을 받았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인비(32)가 1언더파 283타를 쳐 단독 4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T 타이거즈 전망대

지난주 부진·오심으로 1승 5패 7위
브룩스, 허리 통증 엔트리 말소
양현종 호투·김규성 활약 작은 위안
이번주 두산·SK·KT와 6연전
맷 감독 “집중력 있는 승부 하겠다”

‘악몽의 한 주’를 보낸 KIA 타이거즈가 순위 싸움에 재시동을 건다.
KIA에는 최악의 한 주였다. 2연전 일정이 시작되면서 서울(LG)-광주(NC)-고척(키움)으로 이어진 강행군 속 1-3위의 팀들을 연달아 만났다.
믿었던 마무리 전상현이 흔들리면서 충격의 역전 끝내기패로 한 주가 시작됐다. 나지완의 8회말 동점 스리런이 나왔던 21일 NC전에서도 전상현이 9회초 5실점(1자책점)을 하면서 충격의 패배가 기

■ KBO중간순위 (24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85	51	2	32	0
2	키움	93	55	0	38	1
3	LG	90	51	1	38	3
4	두산	90	50	2	38	3.5
5	KT	86	46	1	39	6
6	롯데	85	44	1	40	7.5
7	KIA	87	45	0	42	8
8	삼성	90	41	1	48	13
9	SK	90	30	1	59	24
10	한화	88	24	1	63	29

록됐다. 키움과의 주말 경기에서는 이를 연속 판정 논란이 벌어졌다.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1승 5패, 순위는 7위까지 내려왔다.
부상 악재도 이어졌다. ‘에이스’ 브룩스가 24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경미한 허리 통증이 생기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123이닝을 소화한 브룩스가 잠시 쉬어가게 됐다.
그래도 위안거리는 있다.

23일 윌리엄스 감독이 비디오 판독 과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등 뒤숭숭한 상황 속에서도 ‘1할 타자’ 김규성이 키움 마무리 조상우를 상대로 극적인 홈런을 날리며 팀의 5연패를 끊었다. 지난 22일 오심으로 분위기가 흔들리면서 3-0에서 3-4패를 당했던 KIA에는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는 승리가 됐다.
불펜 난조로 승리까지 챙기지 못했지만 양현종이 상승세를 이어간 부분도 고무적이다. 임기영도 앞선 등판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는 등 선발진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문제는 역시 불펜, 전상현과 장현식이 아찔한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지난주 KIA는 뒷심싸움에서 밀렸다.
안정감 있게 이닝을 처리해 주던 박준표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던 한 주였다. 박준표가 이제 캐치볼에 들어가는 등 복귀에 시간이 필요하면 만큼 새로운 한 주 딱히 불펜 전력 강화 요인도 없다.
선발과 야수진이 ‘집중력 있는 승부’로 불펜의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주 연패 상황에서 “냉정하

게 말하면 쉽게 실점하는 상황이 많았다. 선발진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일찍 빠져야 하는 경기가 많았다”며 “불펜 과부하 시키지 않고 선발진 건강하게 유지하는 두 가지를 최대한 고려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선발진의 이닝이 짧아질수록 불펜의 부담은 커진다. 선발진의 이닝에는 야수진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주 KIA는 내-외야에서 실수가 연달아 나오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 야수진의 실수는 투구수 증가로 연결되는 만큼 안정된 수비가 불펜 안정화의 기본이 될 전망이다.
‘이닝이터’ 브룩스가 잠시 쉬어가는 만큼 선발진의 이닝이 더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KIA는 주중 두산 베어스, SK 와이번스와의 원정경기 이후 광주로 돌아와 KT위즈를 상대하게 된다. 잠실-문학-광주 일정을 앞두면서 지난주보다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은 덜하다.
힘겨운 한 주를 보낸 KIA가 김규성의 극적인 결승 홈런으로 분위기를 살려 반전의 한 주를 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1전 전승 우승’ 챔스 역사 바꾼 뮌헨

파리 생제르맹 1-0 꺾어
6번째 우승...7년만에 트레블
득점왕, 15골 레반도프스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7년 만에 유럽 정상에 서며 ‘트레블’의 위업을 달성했다.
뮌헨은 24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타디우 다 루스에서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서 킵스리 코망의 결승골을 앞세워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에 1-0으로 이겼다.
앞서 분데스리가,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을 제패한 뮌헨은 UCL 우승컵 ‘빅이어’까지 들어 올려 2012-2013시즌 이후 7년 만에 트레블(3관왕)을 달성했다.
유럽 축구 사상 두 차례 트레블을 이룬 구단은 뮌헨과 바르셀로나(2009년, 2015년·스페인)뿐이다.
뮌헨은 통산 6번째로 UCL 우승을 이뤄 레알 마드리드(13회·스페인), AC밀란(7회·이탈리아)에 이어 리버풀과 함께 최다 우승 공동 3위에 자리했다.
8강전에서 바르셀로나를 8-2로 대파해 놀라움을 넘어 ‘공포’를 선사했던 뮌헨은 결승전 승부를 90분 안에 끝내 이 대회 11경기 전승 우승의 대기록까지 달성했다.
전신인 유러피언컵까지 통틀어 무패 우승은 몇 차례 있었으나,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며 우승한 것은 뮌헨이 처음이다.
득점왕은 이날은 골을 넣지 못했으나 총 15골을 터뜨린 뮌헨의 ‘주포’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게 돌아갔다.
뮌헨은 후반 14분 요주아 키미히가 오른쪽에서



“우린 완벽해” 바이에른 뮌헨의 미누엘 노이어가 23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타디우 다 루스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PSG)과의 2019-2020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린 대각선 크로스를 코망이 문전에서 헤더로 마무리, 결승골을 뽑았다.
8강전, 준결승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던 주전 미드필더 이반 페리시치 대신 코망을 ‘깜짝’ 선발로 내세운 한지 플리크 뮌헨 감독의 전략이 보기 좋게 먹혀들었다. 뮌헨은 득점한 뒤에도 공세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PSG를 압박했고, 결국 완벽에 가까운 승리로 UCL 사상 가장 압도적인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